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받은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의사소통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who took Blended Learning on the Adjustment to College Life

신은선

서영대학교 간호학과

Eun Sun Shin(ses0889@seoyeong.ac.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받은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의사소통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자는 간호학과 1,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133명이었다. 자료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는 2021년 11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WIN version 26.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차이검증은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학생활적응은 대인관계와 의사소통능력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 간호학과 선택동기 순이었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44.3%이었다. 결론적으로,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받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일수 있도록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 중심어 : | 블렌디드 러닝 | 간호대학생 | 대인관계 | 의사소통능력 | 대학생활적응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skills of nursing students who received blended learning classes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33 first and second year nursing students.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november 22th to december 3th. 2021. The data was analyzed with the SPSS/WIN 26.0 program. Descriptive statistics and mean differences were analyzed using an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munication competence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factors of communication compet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Nursing and admissions motivation were impact on the adjustment to college life level of nursing students. The explanatory power of this was 44.3%. In conclusion, a strategy for improving communication skills and smooth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s needed so that nursing students who have received blended learning can adjustment to college life.

■ keyword : | Blended Learning | Nursing Students | Interpersonal Relationship | Communication Competence | Adjustment to College Life |

접수일자 : 2022년 07월 04일

수정일자 : 2022년 08월 08일

심사완료일 : 2022년 08월 22일

교신저자 : 신은선, e-mail : ses0889@seoyeong.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재 대학은 장기화된 COVID-19로 인한 대응차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원격강의 또는 혼합형 학습 방법을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간호학과에서도 장기화되고 있는 COVID-19로 인한 대응으로 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블렌디드 러닝 교수법을 적용하고 있다[1]. 블렌디드 러닝은 단순히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 환경만을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 관련된 모든 활동과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한 최고의 웹기반 학습이다[2]. 미국 교육부에서 2010년에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100% 면대면이나 원격강의보다 블렌디드 러닝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3]. 블렌디드 러닝의 효과는 학습자와 교수자 입장에서 모두 긍정적으로, 학습자들은 자기주도적 학습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교수자는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관심과 편리성에 주목하였다[4].

간호대학생은 예비 간호사로서의 기본 자질과 소양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교양과 전공지식, 핵심간호술을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간호실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5]. 그리고 간호학과 교육과정 특성은 타 학과에 비해 이론 및 실습 교과목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간호대학생들은 전문적 지식 습득에 필요한 이론교육과 임상실습을 병행하면서 과중한 학업부담감과 임상실습에 대한 스트레스로 심리적 부적응 등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6]. 또한 간호대학생은 학업 이외에도 다양한 집단과의 관계형성, 윤리의식 고취, 간호사 국가고시, 취업 스트레스 등이 높아[7], 전문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신만의 학습관리 및 원만한 대인관계를 증진하여 대학생활적응을 주체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8]. 이러한 요구들에 대한 대학생활적응은 성장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적응하지 못할 때는 불안, 우울 및 좌절감 등의 정신, 심리적 건강 문제를 초래한다[9].

요즘은 사회구조가 서비스업의 발달로 인하여 대인관계는 간호대학생의 주어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10]. 그래서 간호실무 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대상자들과 상호협조적

인 대인관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11]. 그리고 간호대학생 시기에 대인관계는 사회화 과정을 촉진시키고, 타인과의 의사소통과 조화를 지속시키는 것을 도와준다[12]. 또한 대인관계는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한다고 하였다[13]. 이에 간호교육도 오프라인 교육이 아닌 온라인 강의 증가 등 사회적 변화가 있어[14] 대면이 아닌 비대면 증가로 인한 타인과의 관계 변화에 따른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대인관계에서 꼭 필요할뿐만 아니라 대학생활적응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15]. 의사소통능력이란 타인과의 관계속에서 효과적으로 소통을 통해 상호작용을 잘하도록 돕는 것이다[16]. 그리고 자신의 의사소통 분석을 통해 자기를 인식하고, 타인을 이해하면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17]. 간호대학생에게도 의사소통능력은 다양한 간호상황에서 대상자와의 관계형성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고[18], 대상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신체적 간호, 정서적 지지 및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데 필수적이고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기본소양에 속한다[19]. 그러나 간호대학생은 효율적인 의사소통기술 부족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와 의욕저하 등에 영향을 받고 있다[17]. 의사소통능력 함양은 단시간에 증진할 수 있는 역량이 아니므로 체계적인 교육과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이 필요하다[20]. Kesten[21]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에게 의사소통능력 증진을 위해서는 강의 교수법만을 적용한 집단보다 강의와 역할극 등 학생들이 직접 시범을 보이고 참여한 집단에서 의사소통능력이 보다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간호학과가 대부분 의사소통 관련 교육은 정규 교육과정에 2학점 교과목으로 강의 교수법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적인 의사소통능력 증진에는 제한점이 많음을 확인하였다[22].

대학생활적응이란 대학생이 대학생활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의 욕구와 대학 환경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것으로[23], 개인적, 사회적 삶에 대한 적응에도 중요한 영향을 준다[24]. 간호대학생은 간호학과 전공 선택 동기가 자신의 적성을 고려한 것보다는 높은 취업률 때문에 선택한 경우가 많아 학업적, 정서적 적

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8].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은 예비간호사로서의 임상현장 적응력을 갖춘 신규간호사의 배출을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15], 단순히 대학생활 적응이라는 의미를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다루어져야 한다[25]. 그리고 간호학과 1, 2학년은 자신이 스스로 전공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대학생활 기대에 대한 현실적 괴리감으로 인하여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자퇴나 휴학 외에 다양한 심리적인 적응상의 문제를 보이고 있다[26]. 또한 대학생활 적응 요인 중 자퇴는 대인관계가 낮을수록 높았고[27], 기능적 의사소통 수준이 높고 역기능적 의사소통 수준이 낮으면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높았다[28]. 이처럼 간호대학생의 중도탈락율을 감소시키려면 대학생활적응을 잘하도록 하여야 한다[27].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인관계[29-31], 의사소통능력[28][32], 자아분화[23][31], 스트레스[28][33], 자아탄력성[29]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연구를 보고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에 의하면 간호대학생의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은 간호학과 선택동기, 동아리 활동, 전공만족도 등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28-32].

그리고 블렌디드 러닝을 적용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들에게 적용한 연구로는 의사소통능력[34], 학업성취도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14], 비판적 사고성향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35], 사회적 거리감[36], 학습만족도[1] 등이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블렌디드 러닝 학습이 자기주도학습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 등 수업 효과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을 확인하였지만, 대인관계, 의사소통능력 및 대학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대학생활적응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상황과 환경을 경험하고, 학과 활동을 통하여 원만한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을 잘해야 한다[37]. 그래서 대인관계와 의사소통능력은 대학생활적응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화된 COVID-19로 인해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받은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의사소통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자 하며, 이는 간호대학생의 중도탈락율을 감소하고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비교과활동 프로그램 개발에 블렌디드 러닝 교수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대인관계, 의사소통능력 및 대학생활적응 정도와 차이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대인관계, 의사소통능력 및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COVID-19로 인해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받은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의사소통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블렌디드 러닝 수업은 해당 학기 모든 교과목을 간호대학생 전학년에 적용하였다. 수업 방식은 학점당 LMS에 동영상 수업기준에 따라 1학점 1시간은 25분 이상 동영상, 교안 등을 비대면 수업자료로 업로드하여 온라인 수강하도록 하고, 1학점 1시간은 대면수업으로 15주 동안 운영하였다. 블렌디드 러닝 수업은 온라인 보충방식으로 대면으로 정규수업을 하고 비대면 동영상 수업 자료를 통해 예습이나 복습을 할 수 있는 반복학습이 가능한 교수법이다[38].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 지역에 소재하는 일개 대학교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받은 간호학과 1, 2학년 재학생으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학생들 중 편의 추출하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9.7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는 중간크기인 .15, 검정력 .95로 하였다. 이는 간호대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대학생

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선행연구[39]에 따라 효과크기 .15(medium), 변수 3개로 계산하였으며, 연구에 필요한 표본 수는 119명이었다[40]. 이를 근거로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138명의 연구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 5부를 제외하고 총 133명의 설문지 결과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 도구

3.1. 대인관계

대인관계는 Schlein, Guerney와 Stover[41]의 Relationship Change Scale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문선모와 이형득[42]이 변안한 대인관계 변화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7개의 하위영역으로 만족감 4문항, 의사소통 4문항, 신뢰감 3문항, 친근감 3문항, 민감성 2문항, 개방성 5문항, 이해성 4문항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1점에서 '매우 만족하는 편이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총점은 25점에서 125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문선모와 이형득[42]의 연구에서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7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79이었다.

3.2. 의사소통능력

본 연구에서는 Rubin[43]의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ICC)에서 제시한 8가지 의사소통능력 구성 개념에 허경호[44]가 7가지 개념을 합하여 수정 보완한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y Scale(GICC)를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부적응 문항 10, 11번 문항은 역 환산 후 채점하였다. 총점은 15점에서 75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허경호[44]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72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73이었다.

3.3.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은 박신영[6]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6개의 하위영역에 걸쳐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하위영역은 대인관계, 전공만족, 전공 수월성, 대처역량, 취업준비, 학업 충실도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부적응 문항 11, 16, 17번 문항은 역 환산 후 채점하였다. 총점은 34점에서 17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의 Cronbach's α 는 .92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4이었다.

4. 자료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1년 11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일 지역에 소재하는 일개 대학교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받은 간호학과 1,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자료수집은 학과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며, 연구 참여 동의서는 강의나 성적평가에 관여된 사람이 아닌 연구보조원이 익명성과 비밀보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참여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았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이때 설문조사를 자발적으로 중단하여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강조하여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개인정보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숫자를 알려주어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자가 제공한 정보는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설명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간은 평균 10-20분 정도 소요되었고, 설문지를 작성한 후에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인관계, 의사소통능력, 대학생활적응 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으로 구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의사소통능력, 대학생활적응은 t-test, ANOVA,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대인관계, 의사소통능력,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연구대상자의 대

인관계, 의사소통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으로 학년은 1학년 69명(51.9%), 2학년 64명(48.1%)이었고, 성별은 남자 29명(21.8%), 여자 104명(78.2%)이었다. 종교는 있음이 52명(39.1%), 없음이 81명(60.9%)이었고, 거주형태는 자취 62명(46.6%), 기숙사 40명(30.1%), 자택 25명(18.8%), 기타 6명(4.5%) 순이었다. 동아리 활동 경험은 있음이 36명(27.1%), 없음이 97명(72.9%)이었고, 간호학과 선택동기는 취업률이 82명(61.7%)로 가장 높았고, 성적고려 39명(29.3%), 적성고려 8명(6.0%), 기타 4명(3.0%)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41명(30.8%), 보통이 54명(40.6%), 불만족이 38명(28.6%)이었고, 스트레스 정도는 높음이 56명(42.1%), 보통이 50명(37.6%), 낮음이 27명(20.3%)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33)

특성	구분	N(%)
학년	1학년	69(51.9)
	2학년	64(48.1)
성별	남자	29(21.8)
	여자	104(78.2)
종교	있음	52(39.1)
	없음	81(60.9)
거주형태	자택	25(18.8)
	자취	62(46.6)
	기숙사	40(30.1)
	기타	6(4.5)
동아리활동	있음	36(27.1)
	없음	97(72.9)
간호학과 선택 동기	적성고려	8(6.0)
	성적고려	39(29.3)
	취업률	82(61.7)
	기타	4(3.0)
전공만족도	만족	41(30.8)
	보통	54(40.6)
	불만족	38(28.6)
스트레스 정도	높음	56(42.1)
	보통	50(37.6)
	낮음	27(20.3)

2. 대상자의 대인관계, 의사소통능력 및 대학생활 적응

본 연구대상자의 대인관계, 의사소통능력 및 대학생활적응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한 결과, 대상자의 대인관계는 5점 만점에 평균과 표준편차는 3.63±0.48점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에서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면, 이해성이 3.77±0.76점으로 가장 높았고, 친근감이 3.73±0.77점, 민감성이 3.69±0.79점, 만족감이 3.68±0.85점, 의사소통이 3.59±0.82점, 개방성이 3.48±0.91점, 신뢰감이 3.47±0.9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과 표준편차는 3.52±0.89점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은 5점 만점에 평균과 표준편차는 3.79±0.68점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에서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면, 대인관계는 3.77±0.78점, 전공만족은 3.48±0.69점, 전공수월성은 3.47±0.74점, 대처역량은 3.66±0.78점, 취업준비는 3.55±0.77점, 학업충실도는 3.75±0.81점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대상자의 대인관계, 의사소통능력 및 대학생활적응 (N=133)

변수	Min	Max	M±SD	Range
대인관계	2.46	5.00	3.63±0.48	1-5
만족감	2.50	4.86	3.68±0.85	1-5
의사소통	2.18	5.00	3.59±0.82	1-5
신뢰감	2.02	5.00	3.51±0.59	1-5
친근감	2.42	4.52	3.47±0.92	1-5
민감성	2.54	4.84	3.69±0.79	1-5
개방성	2.03	4.93	3.48±0.91	1-5
이해성	2.54	5.00	3.77±0.76	1-5
의사소통능력	2.45	4.59	3.52±0.89	1-5
대학생활적응	2.63	4.95	3.79±0.68	1-5
대인관계	2.54	5.00	3.77±0.78	1-5
전공만족	1.96	5.00	3.48±0.69	1-5
전공수월성	2.07	4.87	3.47±0.74	1-5
대처역량	2.38	4.94	3.66±0.78	1-5
취업준비	2.10	5.00	3.55±0.77	1-5
학업충실도	2.50	5.00	3.75±0.81	1-5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의사소통능력 및 대학생활적응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의사

소통능력 및 대학생활적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는 거주형태(F=4.672, $p=0.004$), 동아리활동(F=10.817, $p=0.001$), 전공만족도(F=7.295, $p=0.001$), 스트레스정도(F=17.874, $p<0.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거주형태에서는 자취나 기숙사에 있는 경우보다 자택에서 거주한 경우 대인관계가 높았고, 전공만족도에서는 만족한 경우가 대인관계가 가장 높았으며, 스트레스 정도가 낮은 경우 대인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년, 성별, 종교, 간호학과 선택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은 종교(F=10.694, $p=0.001$), 동아리활동(F=12.579, $p<0.001$), 간호학과 선택동기(F=7.044, $p<0.001$), 스트레스정도(F=4.864, $p=0.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 분석 결과 간호학과 선택동기에서 적성과 성적을 고려한 경우가 취업률이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의사소통능력이 높았고, 스트레스 정도가 높거나 낮은 경우보다 보통일 때 의사소통능력이 높았다. 그러나 학년, 성별, 거주형태, 전공만족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은 거주

형태(F=7.454, $p=0.001$), 동아리활동(F=17.482, $p<0.001$), 간호학과 선택동기(F=6.642, $p<0.001$), 전공만족도(F=24.847, $p<0.001$), 스트레스정도(F=10.028, $p<0.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거주형태에서는 자택이나 자취보다는 기숙사에 있는 경우 대학생활적응이 높았고, 간호학과 선택동기에서는 취업률과 성적고려보다는 적성을 고려했을 때 대학생활적응이 높았으며, 전공만족도에서는 만족한 경우가 대학생활적응이 가장 높았다. 스트레스 정도는 낮은 경우 대학생활적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년, 성별, 종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4. 대상자의 대인관계, 의사소통능력 및 대학생활 적응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대인관계, 의사소통능력 및 대학생활 적응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은 대인관계($r=0.117$, $p=0.005$)와 의사소통능력($r=0.292$, $p<0.001$)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r=0.534$, $p<0.001$)에서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표 4].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의사소통능력 및 대학생활적응 (N=133)

특성	구분	대인관계		의사소통능력		대학생활적응	
		M±SD	t/F(p) Scheffé	M±SD	t/F(p) Scheffé	M±SD	t/F(p) Scheffé
학년	1학년	3.65±0.45	1.625(.204)	3.540±.38	2.682(.103)	3.54±0.23	1.458(.235)
	2학년	3.58±0.32		3.49±0.31		3.60±0.22	
성별	남자	3.61±0.32	2.945(.086)	3.11±0.36	4.592(.075)	3.57±0.25	2.085(.934)
	여자	3.62±0.42		3.49±0.34		3.59±0.22	
종교	있음	3.58±0.31	2.164(.145)	3.61±0.43	10.694(.001)	3.57±0.26	0.808(.472)
	없음	3.48±0.36		3.62±0.38		3.66±0.49	
거주형태	자택 ^a	3.41±0.32	4.672(.004)	3.50±0.38	1.833(.176)	3.61±0.23	7.454(.001)
	자취 ^b	3.56±0.31		3.59±0.39		3.54±0.22	
	기숙사 ^c	3.55±0.39		3.70±0.40		3.59±0.25	
	기타 ^d	3.38±0.35		3.22±0.37		3.35±0.13	
동아리활동	있음	4.54±0.44	10.817(.001)	3.64±0.38	12.579(.001)	3.60±0.22	17.482(.001)
	없음	3.51±0.31		3.61±0.40		3.56±0.23	
간호학과 선택동기	적성고려 ^a	3.61±0.24	1.346(.218)	3.48±0.36	7.044(.001)	3.63±0.24	6.642(.001)
	성적고려 ^b	3.52±0.32		3.56±0.38		3.52±0.23	
	취업률 ^c	3.50±0.37		3.65±0.41		3.59±0.22	
	기타 ^d	3.54±0.19		3.43±0.36		3.49±0.17	
전공만족도	만족 ^a	3.85±0.38	7.295(.001)	3.52±0.61	1.665(.202)	3.62±0.38	24.847(.001)
	보통 ^b	3.64±0.42		3.57±0.72		3.71±0.44	
	불만족 ^c	3.44±0.27		3.37±0.32		3.37±0.28	
스트레스정도	높음 ^a	3.43±0.42	17.874(.001)	3.38±0.42	4.864(.005)	3.59±0.22	10.028(.001)
	보통 ^b	3.53±0.22		3.66±0.33		3.53±0.22	
	낮음 ^c	3.61±0.25		3.61±0.49		3.61±0.25	

표 4. 대상자의 대인관계, 의사소통능력 및 대학생활적응간의 상관관계 (N=133)

변수	대인관계	의사소통능력		대학생활적응
		r(p)		
대인관계	1			
의사소통능력	.534(<.001)	1		
대학생활적응	.117(.005)	.292(<.001)	1	

5.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 모형의 기본 가정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 값이 1.728로 자기상관의 문제는 없었고, 독립변수 간 공차관계는 .728-.925로 0-1사이였고, VIF는 1.045-1.325로 10보다 작아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종속변수는 대학생활적응을 투입하고, 독립변수로 대인관계, 의사소통능력 및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 종교, 거주형태, 동아리 활동, 간호학과 선택동기, 전공만족도, 스트레스정도를 투입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회귀방식의 모형은 적합하였으며 (F=43.674, p<.001), 모형의 설명력은 44.3%였다.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사소통능력($\beta=378$, p<.001), 대인관계($\beta=.247$, p<.001), 간호학과 선택동기($\beta=225$, p=.002), 스트레스정도($\beta=.186$, p<.001), 전공만족도 ($\beta=.156$, p=.014) 순으로 나타났다[표 5].

표 5.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133)

변수	B	SE	β	t	p
(상수)	.361	.245		2.695	<.001
간호학과 선택동기	.628	.147	.225	4.069	.002
전공만족도	.124	.017	.156	3.768	.014
스트레스정도	.056	.025	.186	3.163	<.001
대인관계	.125	.051	.247	3.057	<.001
의사소통능력	.528	.038	.378	2.724	<.001
Adjusted R ² =.443, F=43.674, p<.001					

I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COVID-19로 인하여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받은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의사소통능력이 대학생활적응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다음과 같이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대인관계는 5점 만점에 평균 3.63점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하위영역에서는 이해성이 평균 3.77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는 거주형태, 동아리활동, 전공만족도, 스트레스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블렌디드 러닝 수업에 대인관계 변수를 적용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간호대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다른 도구를 사용한[29] 연구에서는 3.65점,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고 간호대학생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30] 연구에서는 3.62점, 임미혜[31]의 연구에서는 3.73점으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공만족도와 동아리 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 대인관계가 높은 것으로 확인한 결과[30]와 거주형태, 학과지원동기, 전공만족도가 높은 경우 대인관계가 높게 나타난 결과[31]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간호대학생들은 자취나 기숙사에 있는 경우보다 부모와 함께 거주한 경우에 대인관계 수준이 높았고,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만족하거나 스트레스가 낮을 때 대인관계를 원만하고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블렌디드 러닝은 학습자 중심 혼합수업으로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45], 블렌디드 러닝은 학습 이후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8]. 그래서 블렌디드 러닝을 전 수업에 시행하고 있는 간호학과에서는 팀티칭 수업이 많아 팀원간의 관계형성이 가장 중요하고[30], 이후 간호실무 현장에서 다양한 대상자들과 상호협조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11]. 또한 1학년부터 동아리활동 참여 독려와 교과 및 비교과 교육과정을 단계적으로 운영하여[30], 교수자와 학습자간에 소통하면서 긍정적인 대인관계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은 5점 만점에 3.52점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은 종교, 동아리활동, 간호학과 선택동기,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블렌디드 러닝을 기반으로 한 정신간호학 실습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연구[34]에서는 4.08점이었으며, 블렌디드 러닝을 적용한 연구는 아니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박정원과 최명숙[18]의 연구에서는 3.56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거의 유사하였고, 김혜옥, 소현진과 정세윤 등[46]의 연구에서는 3.30점으로 더 낮게 나타났으며, 성지현[32]의 연구에서는 3.93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중등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별, 교내실습기관, 동료와의 관계 정도 및 협력정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연구결과[46]와 연령,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연구결과[18]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 1, 2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대상자의 차이와 일반적 특성 변수의 특성이 비슷하지 않아 이러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보여 추후 동일한 대상과 변수로 확인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간호학과 선택동기에서 적성과 성적을 고려한 경우가 취업률이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의사소통능력이 높았고, 스트레스 정도가 높거나 낮은 경우보다 보통일 때 의사소통능력이 높았다. 간호대학생은 다양한 간호상황에서 대상자와의 관계형성을 위해 의사소통능력은 중요하고[18], 의사소통능력은 강의식 교육만이 아닌 조별활동 및 역할극 등 학생들이 직접 참여한 경우에 의사소통능력이 증진되었다[21]. 그리고 블렌디드 러닝을 기반으로 한 정신간호학 실습교육에서 기존의 면대면 수업보다 혼합수업이 학생들간의 협력적 의사소통을 통하여 더 나은 문제 해결을 추론하였다[34]. 그러나 대부분 간호학과의 의사소통 관련 교육을 강의식 교수법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적인 의사소통능력 증진에는 제한점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22]. 그래서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 의사소통능력은 단시간에 증진할 수 있는 역량이 아니므로 간호대학생 1학년 시기부터 의사소통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 실제적인 프로

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은 5점 만점에 3.79점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 하위영역에서 대인관계가 평균 3.77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은 거주형태, 동아리활동, 간호학과 선택동기, 전공만족도,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블렌디드 러닝 수업에 대학생활적응 변수를 적용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선행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33] 연구에서는 3.49점이었고, 간호대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다른 도구를 사용한[29] 연구에서는 3.21점이었다. 그리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른 도구를 사용한[30] 연구에서는 3.36점이었고, 임미혜[44]의 연구에서는 3.30점으로 모두 본 연구결과보다 더 낮게 나타났으나, 대학생활적응은 중등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과 지원동기, 전공만족도에서 대학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31]와 유사하였다. 그리고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발적 학과지원, 전공과 대학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차이가[30] 있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스트레스가 낮고, 적성을 고려하여 자발적 동기로 간호학과를 선택한 경우, 다양한 교우들을 사귄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을 한 경우[31],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간호대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기보다는 높은 취업률과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간호학과를 선택하여[6], 휴학, 자퇴 등 중도탈락률이 높아지고[27] 대학생활적응에서 어려움이 겪고 있다. 그래서 대학생활적응을 잘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제적이고 일상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33]. 따라서 대학차원에서 이미지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노력도 필요하고[30], 중도탈락률을 줄이면서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신입생 때부터 전공과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학습 후 만족도가 높은[38]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한 다양한 비교과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받은 간호대학생

의대인관계, 의사소통능력 및 대학생활적응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대학생활적응은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에서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블렌디드 러닝을 적용한 연구는 아니지만 대학생활적응과 대인관계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29-31]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과 의사소통능력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32]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 증진은 대인관계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한 연구[18]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현재 블렌디드 러닝을 간호대학생에게 적용한 연구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 및 학업적 효능감[1][14][35] 등 학습과 관련된 연구는 보고되고 있으나 대인관계, 의사소통능력 및 대학생활적응에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연구결과를 비교할 수 없으나 이러한 결과를 보면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받은 간호대학생들은 대면 및 비대면 혼합수업으로 사회적 네트워크, 디지털 의사소통의 증가[47]로 인하여 타인과의 관계 변화에 따른 대인관계와 의사소통능력이 대학생활적응을 높이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받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 간호학과 선택동기, 스트레스정도, 전공만족도 순으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는 전체 변량의 약 44.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블렌디드 러닝을 적용한 연구는 아니지만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고[39], 의사소통능력이 높고 [46], 전공만족도가 높으며 간호학과 지원동기가 확고한 경우[33],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은[31]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소통능력 및 대인관계를 증진시키고 적성에 맞는 간호학과 선택과 스트레스가 낮으며 전공에

만족한 경우 대학생활적응을 잘 할 수 있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간호교육도 장기화된 COVID-19로 인해 대면과 비대면 혼합수업으로 이루어진 블렌디드 러닝을 적용하는 등 사회적 변화가 있어[14], 1, 2학년 시기에 지도교수와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하여 학과 부적응 요인을 미리 파악하여 대학생활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29]. 그리고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받고 있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일 수 있도록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한 전략과 이를 중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받은 간호대학생들은 대인관계와 의사소통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서로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도 유의미한 관련이 있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교육 과정에서 대인관계와 의사소통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블렌디드 러닝 학습법을 적용한 대인관계와 의사소통능력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는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받은 간호대학생 1, 2학년에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고, 중도탈락률을 줄이면서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을 돕기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시 블렌디드 러닝 교수법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간호학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개 대학에 재학중인 간호대학생 1, 2학년만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장기화된 COVID-19로 인하여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받은 간호대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대인관계와 의사소통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간호대학생의 중도탈락률을 감소하면서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한 비교과활동 프로그램 개발에 블렌디드 러닝 교수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결과,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받은 간호대학생의 간호학과 선택동기, 전공만족도, 스트레스 정도, 대인관계, 의사소통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임을 확인하였고, 이들 변인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44.3%이었다. 그중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예측변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블렌디드 러닝 교수법을 적용한 다양한 비교과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한다면 대학생활적응은 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간호학과 일개 대학 재학생 1, 2학년만 대상으로 하여 대상자 표집의 한계점이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의 전체결과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으므로 전체 학년이나 여러 학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블렌디드 러닝 교수법을 활용한 다양한 수준의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간호대학생들에게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블렌디드 러닝 교수법에 대인관계, 의사소통능력 이외에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에 대해 조사하는 추후 연구를 제안한다.

참고 문헌

- [1] 하윤주, 이상준, 서남숙, “블렌디드 러닝을 적용한 학습이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융합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9권, 제11호, pp.509-517, 2018.
- [2] 권희림, 문은경, 박인우, “국내 블렌디드 러닝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교육정보미디어연구, 제21권, 제3호, pp.333-359, 2015.
- [3] 백영균, 한승록, 박주성, 김정겸, 최명숙, 변호승, 박정환, 강신천, 윤성철, *스마트 시대의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4판*, 학지사출판사, 2015.
- [4] 이상수,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블렌디드 수업모형 개발,” 교육공학연구, 제23권, 제2호, pp.135-159, 2007.
- [5] 구현영, “에니어그램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자존감과 불안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 제17권, 제3호, pp.444-453, 2011. DOI:https://dx.doi.org/10.5977/JKASNE.2011.17.3.444
- [6] 박신영,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척도 도구개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7] 차남현, “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27권, 제2호, pp.124-131, 2016. DOI:http://dx.doi.org/10.12799/jkachn.2016.27.2.124
- [8] 한미현,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제42권, 제1호, pp.36-43, 2017. DOI:https://doi.org/10.21032/jhis.2017.42.1.36
- [9] 윤향숙, 황윤미, 김덕범, 장성화, “대학생의 자아분화, 스트레스 대처방식, 정신건강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실천연구학회, 제10권, 제2호, pp.1-25, 2011.
- [10] 이민선, 채규만,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방략의 매개 효과,”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제12권, 제1호, pp.63-75, 2012. DOI:https://www.earticle.net/Article/A178119
- [11] 임승주, 박은영, “사티어 의사소통 교육에 참여한 간호대학생들의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변화 경험,”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9권, 제2호, pp.151-162, 2013. DOI:https://doi.org/10.5977/jkasne.2013.19.2.151
- [12] D. Howe, *The power of empathy: What it is and why it matters*, The forest of knowledge, 2013.
- [13] 이한우, 염동문, 이미희, “대학생의 정서인식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 정서표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행동장애연구, 제30권, 제2호, pp.415-433, 2014.
- [14] 김수미, “간호학 전공수업에 적용한 블렌디드러닝이 학업성취도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12호, pp.330-338, 2017.
- [15] 최지혜, 박미정, “일 지역 3년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7호, pp.339-349, 2013. DOI:http://dx.doi.org/10.5392/jkca.2013.13.07.339
- [16] M. J. Papa, “Communicator competence and employee performance with new technology:

- A case study,” Southern Communication Journal, Vol.55, No.1, pp.87-101, 1989.
DOI: <http://dx.doi.org/10.1080/10417948909372779>
- [17] 오은정, 고성희, 김지영, 김성렬,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 타인인식 및 의사소통 능력,” 간호행정학회지, 제21권, 제4호, pp.426-434, 2015.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5.21.4.426>
- [18] 박정원, 최명숙, “간호대학생의 자의식,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성향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제18권, 제3호, pp.351-360, 2009.
- [19] 이현숙, 김종경, “병원 간호사의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유형, 조직몰입간의 관계,” 간호행정학회지, 제16권, 제4호, pp.488-496, 2010.
DOI: <https://dx.doi.org/G704-001695.2009.18.3.008>
- [20] 이광자, *의사소통과 간호*, 신광출판사, 2013.
- [21] K. S. Kesten, “Role-play using SBAR technique to improve observed communication skills in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50, No.2, pp.79-87, 2011.
DOI: <http://dx.doi.org/10.3928/01484834-20101230-02>
- [22] 손행미, 김현숙, 고문희, 유수정, “간호대학 학부과정 의사소통 교과목 현황 및 분석,”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7권, 제3호, pp.326-434, 2011.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1.17.3.424>
- [23] 최효진, 이은주,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업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 기본간호학회지, 제19권, 제2호, pp.261-268, 2012.
DOI: <https://dx.doi.org/10.7739/jkafn.2012.19.2.261>
- [24] S. Hurtado, D. F. Carter, and A. Spuler, “Latino Student Transition to College: Assessing Difficulties and Factors in Successful College Adjustment,” Vol.37, No.2, pp.135-157, 1996.
DOI: <https://dx.doi.org/10.1007/BF01730113>
- [25] 양남영, 문선영,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증진행위 및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이 대학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9권, 제1호, pp.33-42, 2013.
DOI: <https://dx.doi.org/10.5977/jkasne.2013.19.1.33>
- [26] 박현태, “간호학과 신입생의 정서지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제15권, 제3호, pp.1576-1583, 2014.
DOI: <https://doi.org/10.5762/KAIS.2014.15.3.1576>
- [27] 박은선, 김광현, “학업중단요인 및 대학생활적응 요인이 대학 신입생의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학회지, 제23권, 제10호, pp.361-384, 2016.
DOI: <https://dx.doi.org/10.21509/KJYS.2016.10.23.10.361>
- [28] 이난희, 유소연,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유형, 스트레스 대처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건강학회지, 제20권, 제2호, pp.58-66, 2017.
- [29] 최숙희,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대인관계능력,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9권, 제11호, pp.148-156, 2018.
DOI: <https://dx.doi.org/10.5762/KAIS.2018.19.1.148>
- [30] 오윤희, 박명숙, “간호대학 신입생의 대인관계 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공감능력의 매개 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8권, 제8호, pp.331-341, 2020.
DOI: <https://dx.doi.org/10.14400/JDC.2020.18.8.331>
- [31] 임미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자아분화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9권, 제9호, pp.225-233, 2018.
DOI: <https://dx.doi.org/10.5762/KAIS.2018.19.9.225>
- [32] 성지현, “간호대학생의 성평등의식, 진로정체감, 의사소통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료분석학회, 제22권, 제6호, pp.2443-2456, 2020.
DOI: <https://dx.doi.org/10.37727/jkdas.2020.22.6.2443>
- [33] 김종경, 김원중, 이선주,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1권, 제7호, pp.120-126, 2020.
DOI: <https://dx.doi.org/10.5762/KAIS.2020.21.7.120>
- [34] 서유진, 한은경,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 을 기반으로 한 정신간호학 실습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협력적 자기 효능감 및 학습전이 동기에 미치는 효과,” 산업융합연구, 제20권, 제2호, pp.61-70, 2022.
DOI:https://doi.org/10.22678/JIC.2022.20.2.061
- [35] 이외선, 노윤구, “블렌디드러닝 융합 사례기반학습이 간호대학생의 학습전략, 비판적 사고성향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9권, 제11호, pp.373-379, 2021.
DOI:https://www.earticle.net/Article/A403107
- [36] 송열매, “온라인 기반 정신간호학실습 교육이 사회적 서적 역량, 정신간호역량, 학습 자기효능감, 전이동기,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21권, 제11호, pp.289-303, 2021.
- [37] 원효진, 박선향, “에니어그램 성격유형별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복지학회, 제20권, 제4호, pp.159-177, 2018.
DOI:https://doi.org/10.23948/kshw.2018.12.20.4.159
- [38] 우종정, 김보나, 이옥형, “대학에서 면대면 수업 대안으로서의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연구,”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제7권, 제2호, pp.219-225, 2009.
- [39] 차현수,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0권, 제8호, pp.381-391, 2019.
DOI:https://doi.org/10.5762/KAIS.2019.20.8.381
- [40] F. Franz,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Vol.41, No.4, pp.1149-1160, 2009.
DOI:https://doi.org/10.3758/BRM.41.4.1149
- [41] S. Schlein, B. Guernsey, and L. Stover,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al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hiladelphi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1971.
- [42] 문선모, 이형득, “인간관계 훈련집단 상담의 효과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논문집, 제19권, pp.195-204, 1980.
- [43] R. B. Rubin, *Communication competence. Speech communication: Essays to commemorate the 75th anniversary of the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pp.94-129, 1990.
- [44] 허경호, “포괄적 대인 의사소통능력 척도 개발 및 타당성 검증,” 한국언론학회, 제47권, 제6호, pp.380-408, 2003.
- [45] 이정은, 양승희, “간호학 분야 학습자 중심 수업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아시아교육연구, 제19권, 제4호, pp.1049-1077, 2018.
DOI:https://doi.org/10.15753/aje.2018.12.19.4.1049
- [46] 김혜옥, 소현진, 정세윤, 변성옥, 백민지, 박준우, “시뮬레이션 수업을 받은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의사소통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권, 제12호, pp.155-166, 2021.
DOI:https://dx.doi.org/10.5392/JKCA.2021.21.12.155
- [47] J. C. De. Gagne, P. D. Koppel, S. S. Kim, and S. Rushton, “Pedagogical foundations of cybercivility in health professions education: A scoping review,” BMC Medical Education, Vol.21, No.1, pp.1-11, 2021.

저 자 소 개

신 은 선(Eun-Sun Shin)

정희원



- 2014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석사)
- 2018년 2월 : 단국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박사)
- 2014년 9월 ~ 2020년 1월 : 동아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20년 2월 ~ 현재 : 서명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정신건강관리, 지역사회정신보건 중독예방, 에니어그램, 동기강화상담